



## 꽃 옛이야기 꽃

# 개와 고양이의 구슬 다름

나이

· 유아(3~5세)

주제

· 목표: 갈등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태도와 친구와의 관계 맺기, 나눔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 주제: 은혜, 협력

핵심어

· 은혜, 협력, 구슬, 할머니, 개, 고양이, 강, 잉어

한국 문화

· 목표: 한 해의 안녕, 건강, 소망 성취 등을 기원하는 한국 전통 풍습 '소원 빌기'를 이해한다.  
· 요소: 소원 빌기 풍습

한국어

· 목표: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배운다.  
· 단어: 주다-받다, 찾다-잃어버리다, 물다-뱌다  
· 표현: 구슬을 주다-구슬을 받다, 구슬을 찾다-구슬을 잃어버리다, 구슬을 물다-구슬을 뱌다.

## 🌸 구연활동내용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예요.



###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개와 고양이의 구슬 다툼'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개와 고양이 중에 누가 더 좋아요? 옛날에는 개와 고양이가 아주 사이가 좋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개와 고양이는 주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주인이 잃어버린 구슬을 되찾으러 갔어요. 하지만 서로 다투어 결국 사이가 나빠졌지요. 개와 고양이가 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게 되었는지 이야기 들어 볼까요?



###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개와 고양이의 구슬 다툼'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개와 고양이를 키우며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가난한 할머니는 마음씨가 무척 착했지요.

하루는 할머니가 강에 나갔다가 어부가 잡은 커다란 잉어를 보았어요. 그런데 잉어가 눈물을 똑똑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가엾어라. 잉어가 얼마나 무서우면 눈물을 다 흘릴까?’

“이보시오, 이 잉어를 내게 파시오.”

마음씨 착한 할머니는 어부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잉어는 값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도 사시겠어요?”

할머니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잉어를 샀어요. 어부가 가자마자 할머니는 그 잉어를 강에 다시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강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한 아이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저를 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답으로 구슬을 드릴게요. 이 구슬에 소원을 말씀하시면 모두 이뤄질 거예요.”

할머니가 강에 놓아준 잉어는 용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세상 구경을 하려고 잉어로 변신해 나왔다가 어부에게 그만 잡혔던 거지요.

잉어가 준 구슬은 참으로 신통방통했어요. “집 좀 다오!”라고 말하면 집이 똑딱 생기고, “쌀 좀 다오!”라고 말하면 쌀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구슬 덕분에 할머니는 부자가 되었지요.



## 🌸 이야기 들려주기

---

이 소문은 멀리 퍼져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음, 그 구슬로 부자가 되었던 말이지. 내가 가서 몰래 가져와야지.”

욕심쟁이 할머니는 구슬 하나를 숨겨서 착한 할머니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봐요, 그 신통방통한 구슬 좀 구경합시다.”

착한 할머니는 순순히 구슬을 욕심쟁이 할머니에게 보여 줬어요. 그런데 욕심쟁이 할머니가 구슬을 이리저리 보는 척하다가 가짜 구슬과 슬쩍 바꾸어 버렸지요.

구슬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다시 가난해졌어요. 커다란 집도 사라지고, 그 많은 쌀도 없어졌지요.

“야옹, 욕심쟁이 할머니가 구슬을 훔쳐 갔나 봐.”

“멍멍, 우리가 할머니 구슬을 찾아오자.”

할머니 집에서 살던 개와 고양이는 구슬을 찾으러 욕심쟁이 할머니가 사는 이웃 마을로 떠났어요. 하지만 이웃 마을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했지요.

“야옹아, 너는 헤엄을 못 치니 내 등에 업혀.”

고양이를 등에 업은 개는 강을 헤엄쳐서 욕심쟁이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 🌸 이야기 들려주기

개와 고양이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고양이는 이리저리 살피다가 쥐 한 마리를 붙잡았지요.

“야옹, 욕심쟁이 할머니가 구슬을 훔쳐 갔어. 넌 할머니가 가져간 구슬을 당장 찾아와. 안 그러면 한입에 꿀꺽 먹어 버릴 테다!”

“ 짹! 구슬을 찾아올 테니 제발 잡아먹지 마세요. 짹!”

깜짝 놀란 쥐는 요리조리 구석구석 한참을 돌아다니더니 드디어 구슬을 찾아왔어요.

“야옹, 우리 할머니가 잃어버린 구슬이 맞지?”

“멍멍, 맞아. 욕심쟁이 할머니에게 들리기 전에 어서 가자.”

개와 고양이는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어요.

강가에 도착하자,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개에게 또다시 업혔지요. 앞만 보고 헤엄치던 개는 구슬이 걱정되어 말했어요.

“야옹아, 구슬 잘 갖고 있지?”

하지만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있어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야옹아, 구슬 잘 갖고 있느냐니까?”



## 🌸 이야기 들려주기

---

궁금해진 개가 다시 물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야옹아! 혹시 구슬을 강에 빠뜨렸어?”

참지 못한 고양이는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잘 갖고 있…… 앗, 야옹!”

고양이는 그만 구슬을 강에 퐁당 빠뜨리고 말았지요.

“야옹, 너 때문에 구슬이 빠졌잖아.”

화가 난 고양이가 소리쳤어요.

“멍멍, 네가 잘 갖고 있었어야지.”

개는 속상해 하면서 혼자 집으로 가 버렸어요.

어느덧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구슬을 떨어뜨린 강만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물고기 한 마리가 고양이가 있는 강가로 둥둥 떠내려왔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고양이는 물고기를 냉큼 물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맛있게 먹으려던 그 물고기 안에 구슬이 들어 있지 뭐예요. 고양이는 신이 나서 할머니에게 달려갔지요.



## 🌸 이야기 들려주기

---

“할머니, 제가 구슬을 찾았어요. 야옹”

할머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야옹아, 구슬을 찾아 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부터 너는 집 안에서 지내거라.”

할머니가 고양이만 집 안에서 키우며 예뻐하자, 개는 고양이가 너무 얄미웠어요. 그래서 그 후로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나쁜 사이가 되었어요.



## 🌸 구연활동내용



### 한국 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어부에게 붙잡힌 잉어를 강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잉어가 보답으로 할머니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네, 구슬이지요. 그런데 그 구슬을 욕심쟁이 할머니가 훔쳐 갔지요. 개와 고양이는 잃어버린 구슬을 찾으러 떠났고, 결국 고양이가 구슬을 찾아요. '찾다'와 '잃어버리다'처럼 한국어에는 서로 정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들을 반대말이라고 해요. '구슬을 주다'와 '구슬을 받다', '구슬을 물다'와 '구슬을 뺏다'도 서로 반대말이지요. 여러분들도 반대말을 더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잉어가 할머니에게 준 구슬은 어떤 구슬이었나요?

그래요. 소원을 들어주는 신기한 마법의 구슬이었죠.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면 자연과 조상님, 하늘에 정성껏 기도하고 빌었어요. 설날 아침에는 새해 첫 해를 보며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 주세요!" 하고 빌었어요. 정월대보름에는 커다란 보름달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농사가 잘 되게 해 주세요!" 하고 빌었지요. 추석에도 한가위 보름달을 보며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빌었어요. 그리고 산이나 절 입구에 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소원을 빌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소원을 비는 풍습은 요즘도 이어지고 있지요. 소원 빌기 풍습 이야기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 구연활동내용



###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개와 고양이의 구슬 다툼'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마음씨 착한 할머니가 잉어의 보답으로 소원 구슬을 받아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욕심쟁이 할머니가 구슬을 훔쳐 갔지요. 할머니 집에 사는 개와 고양이는 구슬을 되찾기 위해 힘을 합쳐 강을 건너가 구슬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구슬을 강에 빠뜨렸어요. 다시 구슬을 찾아온 고양이는 할머니의 칭찬을 받으며 집 안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후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나빠졌지요. 여러분, 평소 고마운 사람에게 은혜를 갚고, 친구들과도 잘 협력하며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요.



###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

